

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7)

4. 한국 화섬산업의 공헌과 과제

4.1.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

4.1.1. 고용, 부가가치, 외환의 획득

화섬산업은 섬유산업의 다른 분야와 함께 경공업의 중심에 위치하여 우리 경제가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을 가지고 수출입국을 하려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것은 의류 등 섬유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하는 섬유 산업에 재료를 제공하여 주어서, 1차적으로는 우리경제에게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나아가 이들 노동력이 여타 덜 노동집약적인 산업활동에 쓰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집약적으로 쓰이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실은 아니나 섬유산업의 순가득액은 전자산업 또는 자동차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여러가지 제조업 생산활동에 쓰이는 원재료를 본원적으로는 주로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보면 어떤 것을 수출했다고 할 때 수출액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해다 쓴 중간재, 원자재 등에 대한 비용지출을 빼고 나서 얻어지는 순가득액은 크게 보아 노동이라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윤의 두 가지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의 기술수준이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우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 이윤에 대응하는 가득액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의 수출에 따르는 순가득액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요소의 상대적 과다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러한 추론에 의할 때 상대적으로

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순가득액의 측면에서도 다른 산업보다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에 외환의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두 갭(two-gap)모델이 적시하는 것과 같이 국내저축도 부족하고 해외저축도 부족한 개발초기에 국내저축 한단위의 가치보다는 해외저축 한단위의 가치가 더 크다. 국내저축과 1:1로 교환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외환이 귀중하다. 따라서 외환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경제활동 또는 순외화가득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활동은 실질적으로는 외화가득의 규모 이상으로 값진 것이다. 때문에 수출을 통해 높은 순가득액을 가져다 준 섬유산업은 실질적으로는 수치적으로 파악된 것 이상으로 국민경제에 대해 숨은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화섬산업도 섬유산업의 일종이다. 때문에 화섬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높은 외화가득액을 가져온 섬유산업이 이룩한 공헌에 일역을 하면서, 특히 비화섬섬유산업에의 공헌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단 화섬산업이 섬유산업 중에서는 덜 노동집약적이라는 점에서 화섬산업의 이러한 차원에서의 공헌은 다른 섬유산업의 공헌보다는 그 강도에 있어 약했다고 할 수 있다.

4.1.2. 기술수준 제고

앞에서 화섬공장들이 80년대 이전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단위보다 작았다는 점이 적시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화섬 생산시설은 라이선스방식의 생산시설이 종래 수입되어 오던 화섬제품을 수입대체하게 되었다는 점도 적시되었다. 사후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류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화섬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

있음을 인식할 때 화섬산업의 이러한 수입대체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그것은 그러한 수입대체가 없었을 때 나타났을 섬유류가격의 상승 및 그것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요소집약도에 있어 노동집약적인 종류의 제조업을 점차 자국 내에 장치하여 수입 대체해 나가는 점을 그 이전에는 없던 기술과 노우하우를 습득해가는 학습과정이라고 볼 때, 화섬산업이 최초에는 효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최소단위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생산을 시작하였다가 규모를 키워나가고 미비한 기술을 도입하고 익히는 이러한 과정은 학습과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화섬산업은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기술수준을 높여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여러 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독자기술을 개발해내는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초기 라이선스방식 등으로 개별시설 또는 단위공장을 도입해 운영하던 이른바 단순조립 또는 단순가공의 단계에서 크게 발전하여 이제는 미비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조달하는 체계를 갖추게끔 탈바꿈했다는 면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4.1.3. 산업연관관계의 보완

종래 존재하지 않던 산업을 하나씩 국내에 가지게 되고 수입대체의 노력을 하면서 공업화를 꾀해 나아가는 도정에 개발도상국이 당면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약은 새로이 가지게 된 산업과 투입 산출의 기술구조에서 보아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가지는 다른 산업을 미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섬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화섬산업은 앞으로는 각종 원료를 공급해 주는 석

유화학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뒤로는 화섬을 원료 및 중간재로 사용하는 방직산업, 의류산업 등을 가져야 하며, 이들은 다시 효율적인 염색산업, 패션산업 등에 의해 최종수요와 연관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하에서 발전해 온 우리나라 화섬산업은 내수 이상 해외로 수출하는 의류산업의 활발한 확장에 힘입어 그것의 원료인 화섬을 공급해가며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화섬을 수입해다 가공하여 수출하던 의류산업으로 하여금 더욱 공고하고 안정적인 산업연관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화섬산업은 그 원료인 카프롤락탐이나 AN모노머 등의 생산시설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4년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우리경제는 이른바 중화학공업화를 회색하였었다. 자체내에 매장된 원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석유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했던 이때에 이러한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무모한, 잘못된 정책선택이었다. 그러나 일단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용인하는 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공장시설로부터의 제품에 대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화섬산업은 큰 생산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중화학사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정착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고, 중화학공업화의 폐해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4.2. 화섬산업에 대한 비판

이상에서 본 화섬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화섬산업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화섬산업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상응하여 괄목한 성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성과가 가능한 최선이나 아니면 최선에는 못미치느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섬산업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 화섬산업이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수출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의류산업 등에 의해 시장을 사실상 보장받았었기 때문에 화섬산업은 경쟁산업으로서의 효율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였다.

둘째, 화섬산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의류산업 등의 중간에 위치하여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이들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특히 화섬산업은 그곳에서의 기업들보다 규모면에서 작은 의류관련기업들에 대해 조금 더 건설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오늘날 염색공업, 패션 디자인산업 등이 취약하여 의류산업이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종류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남아나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정은 이들 하류에 있는 기업들을 지도하고 유도할 수도 있었던 화섬업계가 일찍이 이들을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하류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나은 상태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더라면 화섬산업의 매출도 컸을 수 있고 가격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섬유교역에 대한 제도인 MFA(multi-fibre agreement)에 대해 더 잘 대응하였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이 섬유수출을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쿼터를 착실히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서는 화섬산업도 면책될 수는 없겠다.

이러한 화섬산업에 대한 비판은 모두 액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암시하는 바 화섬산업의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점은 내일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조만간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

로 될 수 밖에 없다.